

금요 수필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

이 세상에 부끄럼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의 어머니에게서 이 세상으로 건너온 존재다. 이 단순한 진실을 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에야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

어머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지도 어느덧 이십 해가 흘렀다. 내 나이 또한 구순에 이르렀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뚜렷해진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야쿠 이유 없이 어머니가 꿈시 보고 싶어진다.

그리움이 깊어질 때면 영정사진과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본다. 사진 속 어머니는 살림과 농사일로 햇빛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이다. 받고자 처럼 길게 꿰인 이마의 주름에는 자식들을 키우며 견뎌 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노환으로 병환을 앓았을 뒤편 찍은 사진 속 찡그린 미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고통이 지금도 전해지는 듯해 마음 한쪽이 저며 온다.

어머님은 자식 사랑이 유난히 깊은 분이였다.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자식들 귀하고 일하는 일민은 늘 번져왔다. 정와 부인을 위한 것은 늘 부로 미루셨다. 그때는 그것이 어머니의 당연한 몫이 아니었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 삶이 얼마나 큰 희생



고재현
수필가

이였는지 가슴이 미어진다. 뒤늦은 깨달음은 언제나 후회로 남는다. 작고 여린 독으로 간담해다 했던 어머니의 한 생애는 그 자체로 교과서 한 시이었다. 딸과 한숨으로 이어진 날들이 깊은 주름살을 만들었다. 그 수룩마나 스며든 묵묵한 사랑을 나는 이제야 헤아린다.

어머님은 정승 실 씨로 부인 석포리 심촌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에 아버지와 혼인하여 한 가정의 며느리가 되었고, 그날 이후 삶은 오롯이 집안과 자식들을 향해 흘렀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으로, 큰소리도 화를 내는 법 없이 참고 견디며 사셨다.

시대는 선봉 유교 문화가 깊은 내편산 노작기울의 종갓집이었다. 시조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네 남매를 키워야 하는 책임이 어머니

의 몫이었다. 손에는 늘 일이 들려 있었고, 바느질 솜씨와 음식 솜씨는 마을에서도 손꼽혔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희망 있는 부인으로 존경했지만, 그 칭찬 뒤에 쌓인 고단함을 헤아리는 이는 많지 않았다.

남아선호사상이 짙던 시절, 늦게 태어난 손자인 나는 집안의 큰 기쁨이었다. 그만큼 어머니의 희생은 더 깊어졌고, 그 사랑은 말없이 쌓여갔다.

고향 청림리 노작마을은 신과 목이 맑은 곳이다. 바람 소리와 물소리, 새와 풀벌레의 노랫소리가 어우러지는 그 고요 속에서 어머니는 평생 절소하게 사셨다. 아궁이에 불을 때실 때도 나무 한 토막이 아깝다 하시며 방의 방기단 가실 만큼만 불을 지피셨다. 그 삶을 떠올릴수록 마음이 지려 온다.

어머님은 술을 즐기셨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작은 잔치를 벌이곤 하셨다. 그 때는 뒷바라지는 늘 어머니의 몫이었다. 아버님은 87세에, 어머님은 98세에 생을 나치셨다. 긴 세월을 사셨지만, 그 시간 대부분은 타인을 위한 삶이었다.

마음 뒤편 '구미'에는 한때 목화밭이 있었다. 늦가을이면 온 밤이 하얗게 물들었다. 어머니가 목화를 따고 껍질 때 짙었던 나는 숲에서 짐승 소리를 내며 놀라게 하기도 했다. 지금 그 자리는 조상님들 모신 묘지가 되었다.

고향에 갈 때마다 나는 어머니 묘소에 들러 술과 과일을 올리고 고개를 숙인다. 생전의 필요를 사절하며 뒤늦게 마음속 말을 건넨다.

어머니! 꿈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고재현 수필가는 2000년 월간 '문학공간'으로 등단해 한국신문학인협회 전북지회장을 역임했다. 수필집으로 '초록빛 추억' 외 5권, 칼럼집으로 '한민족의 문화' 등 2권이 있다. 전북수필문학상, 영호남수필문학상, 부안군민대상문학상을 수상했다.

기고문

'구급차 뺑뺑이 응급실 미수용' 없는 남원, 그 비결은 무엇인가?

전국적으로 '구급차 뺑뺑이'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도로 위를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은 이제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곳 전북 남원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들려온다.

남원은 인구 7만5,000명의 소도시지만, 광주대구고속도로와 순천완주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지리산을 품고 있어 중증 외상 환자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노인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자도 꽤 많은 지역이지만 응급실은 "지역응급의료센터"급인 남원의료원이 유일하다. 객관적인 의료 인프라만 본다면 언제든 응급실 뺑뺑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남원에는 구급차 뺑뺑이 등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없는 이유와 이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단 수용' 하고 '함께 책임'

지는 필수 보건요의 협력 체계 구축. 지방 소도시의 의료기관이 모든 응급 환자에 대해 최종 진료(수술 및 처치)를 완벽히 준비해 놓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남원 지역의 경우 남원소방서와 남원시 보건소, 남원의료원 간에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다. "모든 119 환자는 일단 수용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재이송은 119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병원이 "배후 진료 인력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며 문을 닫는 대신, 일단 환자를 받아 응급 처치를 시행한다. 이후 남원의료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중증 환자라고 판단되면, 119 구급대가 다시 한 번 힘을 보태 상급 병원으로 재이송을 돕는다. 병원은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119구급대는 이송의 끝까지 책임을 공유하는 이 체계가 남원의 생명선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한 사람의 남원 시민으로서 다행스럽고,



정우진
남원시
정문외과 원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119구급대, 남원의료원, 남원시보건소에 감사할 따름이다.

둘째, 의사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필자는 외과 의사로서 의료 행위의 절대적인 권한은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서 나온다고 믿는다. 권한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막중하다. 응급실 문을 열어두는 것은 단순히 병원의 운영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생명권을 수호하겠다는 의

사들의 직업 윤리와 책임감의 발로여야 한다.

셋째, '살리려는 의지'를 보호할 제도적 면책 필요

현장의 의사와 구급대원 중 환자를 살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법적 소송의 화살은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결국 '방어 진료'와 '수용 거부'라는 악순환을 만든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무를 벌인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에게 법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레이션 의료진은 결과에 대한 공포 없이 오직 환자의 생명에만 집중해 응급실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남원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창한 첨단 장비나 막대한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내 지역의 환자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현장의 협력과 이를 지탱해 줄 최후에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사설

공재고도 급증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줄이겠다며 눈에 버 대신 콩 재배를 장려해 왔다. 하지만 콩 역시 소비 부진으로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때문인지 정부가 증가한 생산량만큼 콩 수매를 늘리지 않아 농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다.

광활한 호남평야에는 과거 벼를 재배하던 논들이 온통 콩 재배 단지로 변했다. 올해 말 현재 국내 논콩 재배 면적은 2만 6천 2백여 헥타르, 한 해 전보다 17퍼센트나 급증했다.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줄이겠다며 눈에 버 대신 콩 등을 심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강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장 많은 부분이 두(콩류)로 전환되고 있다.

수확기 때 그 부분들이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지 않으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한다.

이 같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이달 현재 참고에 쌓인 국산 콩 재고량은 8만여 톤, 역대 최대 수준이다. 1킬로그램에 1천4백 원인 수입콩보다 값이 3배가량 비싸 소비가 부진한 탓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늘어난 생산량만큼 콩 수매량을 늘리지 않아 농민들 걱정도 커지고 있다. 현재 수매한 것은 생산량의 34% 정도. 정부가 수매를 안 한다면 개인이 양곡상이나 이런 곳에 판매해야 한다.

그러면 가격이 폭락한다. 특히 내년엔 참고를 이유로 다시 콩 재배 면적을 줄이는 건 아닌지 점점 궁금하고 있다.

생식콩부는 일단 내년 콩 재배 면적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급증하는 콩 재고에 어떻게 할 대책은 없어 농민도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군산 새빛유치원 사태

원아모집 직전 정원을 되돌린 군산 새빛유치원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 모 의원은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새빛유치원의 학급 편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확한 근거 없이 변경하고, 이후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도 수수방관해 지역사회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또 단순한 착오가 아닌 절차와 소통을 경시한 행정 문화의 민낯이라고 비판하며 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산 신역세권지구에서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새빛유치원은 지난 2022년 당초 계획과 달리 특수학급을 늘리는 대신 일반학급 수를 대폭 줄이면서 인근 사립유치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달 초 학부모와 공·사립유치원, 교육 당국이 참여한 간담회에서의 합의와 달리 정원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학부모들의 발생 항의 끝에 원아모집 당일 아침에서야 일반학급수가 기존대로 조정됐다.

이 같은 지적은,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교육청에만 화살을 돌리는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분 발언에 나선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인 다른 도의원과 함께 원아모집 2주 전 있었던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도의원은 학부모들에게 중재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22년 박 모 도의원 주도로 사립유치원의 생존권 등을 이유로, 교육청의 원인을 변경해 특수학급수를 늘려 정원을 줄인 정본인이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